

제 227회 총회 (2026)

요약 보고서



인사말

미국장로교 총회정서기

신앙사역국 상임대표 오지현 목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전합니다!

밀워키에서 모인 제227회 총회는 “인내로 온전함을 이루라”라는 주제 아래 개최되었습니다. 그 주제는 회의의 과정과 동떨어져 있지 않았으며, 모든 일정을 관통하여 움직였습니다. 대의원들과 자문단들은 예배하고, 숙의하고, 경청하고, 토론하고, 기도하고, 분별하고, 투표했으며, 어려운 질문들을 놓고 씨름하고, 새로운 총회장단을 선출하고, 앞으로 교회의 삶과 증거를 형성할 안건들에 대해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진: 김도하

오지현 목사, 미국장로교
총회정서기 및 신앙사역국
상임대표

총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의원과 자문단, 자원봉사자, 통역사, 예배 인도자, 위원회 지도자, 준회원, 에큐메니컬 동역자, 중간공의회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 최상위 공의회를 통한 교회의 분별 사역을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글은 총회의 사역을 기도로 주의 깊게 수용하기 시작하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전부도 아니고, 사역의 끝도 아닙니다. 총회의 결정은 이제 중간공의회, 개체교회, 위원회, 기관 및 지역 협력자의 손으로 넘어가 해석되고, 실행되며, 삶 속에 적용될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결정들을 통해 독자들은 '서로 연계되어있는 교회'의 사역을 보게 될 것입니다. 총회의 결정이 모든 회원, 교회, 중간공의회를 똑같은 방식으로 구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공동의 분별과 공동의 과업으로 초대합니다. 그 결정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다시 귀 기울이고, 서로를 돌봄으로 영접하며, 교회와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향해 인내하는 우리의 몫을 감당할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의 글들이 우리가 무엇을 결정했는지 기억하고, 성령께서 어디에서 역사하고 계셨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함께하는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증언하는 사역 속에서 이 일을 계속 이어 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언약 공동체와 함께하는 삶과 증언에 감사하며,

오지현 목사
미국장로교 총회 정서기
신앙사역국 상임대표

제 227회 총회(2026) 공동 총회장 인사말

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제227회 총회가 우리에게 맡겨 주신 신뢰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밀워키에서 열린 총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대의원, 자문단, 직원, 자원봉사자, 통역사, 예배 인도자, 위원회 지도자와 호스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총회를 위해, 그리고 총회와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총회 기간 내내 함께 예배하고, 경청하고, 토론하고, 슬퍼하고, 소망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서로를 어떻게 돌볼 것인지, 그리고 미국장로교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부름받았는지에 관한 깊은 질문들을 들었습니다.

“인내로 온전함을 이루라”라는 주제는 총회의 모든 과정에서 거듭해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나뭇잎”이라는 이미지도 그러했습니다. 이 이미지는 우리의 소명을 형성해 왔으며, 지금도 온 교회를 향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글들을 읽으시면서, 총회에서 무엇이 결정되었는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어떤 교회로 나아가도록 초대받고 있는지를 다시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곧, 깊이 경청하고, 용기를 가지고 함께 걸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을 위해 치유와 소망의 나뭇잎을 내어놓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기도를 담아,

마르타 펄로이-코데로 목사, 크리스토퍼 D. 손텔마이어 목사
제227회 미국장로교 총회 공동총회장



사진: 라지 코렐리

마르타 펄로이-코데로 목사와 크리스토퍼 D. 손텔마이어 목사가 제227회 총회 총회장으로 선출된 후 축하받고 있다.

제226회 총회 의장단에게 작별을 고하며

제226회 총회 총회장인 토니 라슨 목사와 시시 암스트롱 목사는 2회 연속 총회를 진행한 첫 총회장이 되었습니다. 이전 총회와는 달리, 제227회 총회는 밀워키에서 열린 본회의의 마지막날에 다음 총회의 총회장을 선출했습니다. 미국장로교를 대표하여, 변화와 새로운 비전 속에서 두 번의 총회와 사역을 이끌어주신 토니 목사와 시시 목사의 리더십, 통찰력, 유머에 감사드립니다.

총회의 안건 결정

제227회 총회(2026)에서 6월 28일 크리스틴 카터 할러웨이가 미국장로교 연금국의 회장 겸 최고경영자로 인준되면서, 연금국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

할러웨이의 취임은 연금국 역사에서도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할러웨이는 연금국의 첫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 회장이자 최고경영자이며, 최초의 유색인종 회장 겸 최고경영자다.



사진: 라지 코플리

크리스틴 카터 할러웨이는 미국장로교 연금국 회장 겸 최고경영자이다.

할러웨이의 임명으로 이제 미국장로교의 세 기관을 유색인종 여성이 이끌게 되었다. 여기에는 총회 정서기이자 신앙사역국 상임대표인 오지현 목사와 출판국의 발행인 겸 회장인 브리짓 그린 목사가 포함된다.

구두 표결로 총회 대의원들은 다음 안건을 승인했다:

- 미국장로교 A-코어퍼레이션 회장 이안 홀



사진: 제프 맥클린

브리짓 A. 그린 목사는 미국장로교 출판국의 회장이다.



사진: 켄드릭 에드워드

이안 홀은 미국장로교 A-코어퍼레이션의 회장이다.

- 미국장로교 출판국 회장 브리짓 A. 그린 목사
- 미국장로교 재단국 회장 겸 CEO 토머스 F. 테일러 목사

일괄투표 안건을 통해 대의원들은 통합 전권위원회의 추천으로 선출된 다음 부서기들을 승인했다: 코리 술로서-홀 박사, 미엔다 우리아르테 목사, 다이애나 라이트 박사, 지미 호킨스 목사, 그리고 사역 장로 케리 라이스.

새로운 사명수행 지침서



크리스틴 케이토스의 사진.

제227회 미국장로교 총회

일괄통과 안건 동의를 통해 대의원들은 수정된 [사명수행 지침서](#)를 승인했다.

사명수행 지침서는 미국장로교 내 상위 공의회인 총회를 위한 조직체계를 규정한다. 본 문서는 미국장로교 신앙사역국과 그 이사회를 규정하고 설명하며, 총회 지시를 수행하는 업무를 맡은 임원진, 총회장, 총회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미국장로교 신앙사역국, 미국장로교 A-코어퍼레이션 및 총회 산하 다른 기관들 간의 관계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규례서 개정안

2026년에 열린 제227회 총회는 미국장로교 헌법 제2부인 규례서에 대한 26개의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러한 수정안은 교회 내 지도자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권한을 남용할 위험을 줄이고, 교회의 직제 사역과 기타 지도자 직책을 재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안된 개정안의 대부분은 지도자들(사역 장로, 집사, 교역 장로, 공인 기독교 교육사, 목회 사역을 위해 파송된 사역 장로, 지망생, 후보생, 목회 준비를 담당하는 위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미국장로교 관련 기관의 직원들)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것이었다. 이러한 제안된 개정안은 반인종주의, 문화 간 역량, 성 관련 위법행위를 포함한 경계 훈련, 아동 성적 학대 예방 또는 아동 및 청소년 학대 예방 문제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제안된 개정안은 또한 목회 사역을 위해 파송된 사역 장로의 교육 훈련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후보생 평가를 위한 대안적인 절차를 제시한다.



사진: 켄 드와즈

샌디에이고 노회 소속 교역 장로 대의원 셀 차우가 GA227 8번째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두 가지 개정안은 노회의 회원 자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한 개정안은 파송 사역장로가 위임받은 기간 동안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진 회원이 되도록 하고, 다른 개정안은 미국장로교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회원 명부와 세례 명부를 노회가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각 직제 사역이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개정안도 있다.

마지막으로, 공적 영역에서 신실한 증언을 요청하고, 국가의 권력을 통해 기독교를 특권적이거나 지배적인 세력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이념, 또는 종교적 정체성을 국가적·인종적·민족적 우월주의와 결부시키는 이념을 거부하는 기본 원칙을 담은 문단을 추가하는 개정안도 나왔다.

2026년 제227회 총회에서 제안된 규례서 개정안은 2026년 8월 말 전에 정서기인 오지현 목사에 의해 공개될 예정이다. 해당 내용은 미국장로교 웹사이트 pcusa.org에 게시되며 PDF 파일로도 제공될 예정이다. 제227회 총회에서 통과된 모든 안건은 pc-biz.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계선교부 관련 조치 사항

대의원들은 [FIN-12](#) '제한된 세계 선교 기금을 신실하게 관리하는 청지기직에 관하여'에 대해 [RIW-01](#) '미국장로교 세계선교 재구조화 검토 요청'을 통해 답변했다.

RIW-01은 총회장들이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이 위원회가 세계선교 사역을 폐지하고 모든 선임 선교 동역자의 해임을 결정하게 된 의사결정 과정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의 역할을 맡긴다.

헌의안은 해당 전권위원회의 업무가 "징벌적이기보다는 회복적이어야 하며, 진실 규명, 제도적 학습, 투명성, 관계 회복 및 향후 결정 과정에 대한 권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이는 “징계 절차로 운영되지 않으며, 비위 행위에 대한 신빙성 있는 우려가 제기될 경우 기존의 적절한 인사, 법률, 교회 또는 거버넌스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이관한다.” 이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는 제229회 총회(2030년)에 제출될 예정이다.



사진: 라지 코펠리

시애틀 노회 소속 교역 장로 대의원 브랜든 타카데나가 GA227의 9번째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총회장 선출

제227회 총회에서 마르타 펄로이-코르데로 목사와 크리스토퍼 D. 손델마이어 목사가 공동총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두 사람은 총회위원 250명의 표를 얻어 1차 투표에서 과반수에 필요한 표를 확보했으며, 이에 따라 추가 투표는 필요하지 않았다.

대의원들 앞에서 후보자 연설을 하면서, 펄로이-코르데로 목사는 선거를 치르는 동안 마음에 품었던 스페인 속담을 소개했다.



크리스틴 케이토스의 사진

마르타 펄로이-코르데로 목사와 크리스토퍼 D. 손델마이어 목사가 밀워키에서 열린 제227차 총회 폐회식에서 역대 총회 의장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Cuando el río hace ruido, lleva agua,”라고 그녀가 말했다. 뜻은 “강물이 소리를 내는 이유는 물이 실려오기 때문”이다. 그녀와 손델마이어 목사가 출마 여부를 고민하던 때, 남편이 전해준 이 속담은 성령의 움직임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말이 되었다.

손델마이어는 그 비전을 교회의 현재 상황과 연결했다. “21세기 목회에 집중하면서, 우리는 성령께서 교회를 더 깊은 곳으로 부르고 계신다고 믿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두 사람은 또 2028년 총회를 푸에르토리코에서 개최하기로 한 교단의 계획이 출마를 결심하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손델마이어 목사는 펄로이-코르데로 목사가 그 개최 제안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모습을 지켜본 이야기도 전했다.

“푸에르토리코에 뿌리를 둔 조상을 가지고 있고, 그 언어를 마음에 품고 있는 훌륭한 공동총회장이 그 총회에서 교회를 맞이한다면, 교회에 얼마나 큰 선물이 되겠습니까?”라고 그는 말했다.

이전 총회에서는 의장 선거가 의사일정 초반에 진행됐다. 이번에는 총회 마지막에 의장 선거가 실시된 최초의 사례였다.

푸에르토리코에서 열릴 총회



크리스틴 케이토스의 사진.

총회위원들이 제228회 총회 개최지로 푸에르토리코가 선정된 것을 기뻐하고 있다.

제228회 총회에 참석하는 대의원, 자문단, 직원 및 손님들은 2028년에 푸에르토리코 산후안으로 향할 예정이며, 이는 총회가 미국 본토 밖에서 개최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다. 이 카리브해 섬에는 하나의 대회와 세 개의 노회가 활동하고 있다.

대의원들은 푸에르토리코에서 총회를 개최하는 것을 압도적으로 승인했지만, 개정을 추가했다 — 즉, 총회에 참석하기 전에 "모든 대의원, 자문단, 자원봉사자, 직원은 푸에르토리코와 미국 간의 사회정치적 및 역사적 관계에 대한 문화적 역량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총회 '어울림의 날'



사진: 라지 코플리



사진: 라지 코플리



크리스틴 게이도스의 사진.

대의원, 자문단, 직원, 손님들이 밀워키 시내에서 모여 “치유를 향해 나아가며: 총기 폭력 종식을 위한 행진”을 하였다.

제227회 총회는 밀워키 시내에서 열린 공동체 행사 "치유를 향해 나아가며: 총기 폭력 종식을 위한 행진"으로 시작되었으며, 총회 참가자, 지역 장로교인, 생존자 및 옹호자들이 기도하고 교육을 위해 함께 모였다.

밀워키 노회와 미국장로교 신앙사역국의 공공정책 선교 사무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참가자들이 하얏트 호텔 맞은편 페르 마르케트 공원에 모였다. 여기서 이들은 총을 호미로 행사의 대장장이 시연과 국내의 연사들의 연설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약 1마일 거리를 왕복하여 밀워키 시청까지 걸어갔고, 건물 주위를 돌며 기도한 후 베어드 센터로 돌아왔다.

밀워키 노회의 '활력있는 목회' 담당 장로인 앤 김스 박사는 “밀워키 지역 준비 위원회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불행하게도 이 문제가 미국 전역에 공통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시골 공동체부터 교외와 도시에 이르기까지, 총기 폭력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나라 모든 주에 존재합니다.”

컨벤션 공간에서의 총기 폭력 예방 교육



사진: 켄 드위즈



데이비드 반하트와 미셸 무니즈가 제227회 총회 기간 중 베어드 센터에서 열린 '어울림의 날' 실내 영화 상영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화와 행진이 진행되는 동안, 장로교 재난 지원 프로그램의 목회인 카운터 스토리 프로덕션(Counter Stories Productions)의 데이비드 반하트와 미셸 무니즈는 [현재 제작 중인 총기 폭력 다큐멘터리의 일부를 상영했다](#).

반하트와 무니즈는 앨버커키, 필라델피아, 디트로이트에서 거의 2년에 걸쳐 인터뷰하며 모은 이야기들이 총기 폭력의 공포와 피해보다는 지역사회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타운 스퀘어



사진: 라지 코플리



GA227 타운 스퀘어는 참가자들이 미국장로교의 다양한 사역을 담당하는 기관과 파트너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였다.

6월 27일, [제227회 미국장로교 총회에 모인 사람들은](#) 베어드 센터 1층에 모여 밀워키와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장로교와 파트너들의 사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스티커부터 총기 부품을 재활용해 만든 정원용 도구까지 다양한 기념품을 받고, 오랜 친구들과 다시 만나고 새로운 사람들과 인연을 맺으며 셀카도 마음껏 찍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다.

계속 이어가는 총회 사역



사진: 정 드워즈



사진: 라커 코플리



크리스틴 게이도스의 사진.

제227회 총회가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았지만, 본격적인 사역은 이제부터 시작된다. 앞으로 2년 동안 각 위원회와 신앙사역국 직원들은 총회에서 승인된 다양한 안건을 추진하는 데 힘을 쏟을 것이다.

위원회 업무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하려면 [프레스비테리언 뉴스 서비스](#)를 팔로우하거나, [제227회 총회 웹페이지](#)를 방문하여 밀워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보십시오. 또한 [MyGA](#)에서 총회 결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